

## 그리스 내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스타브롤라 세로지아니 [홍콩중문대학 선임강사]

## 초록

그리스 내전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폭력적인 순간 중 하나이며, 그 뿌리는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발생한 '좌파'세력과 '우파 세력 간의 충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 내전은 1946-1949 년에 그리스 국왕, 장군 및 외세(영국과 미국)가 지원하는 그리스 정부군(*Greek Government Army*)과 그리스 공산당이 이끌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및 불가리아에서 지원하는 그리스 민주군(*Democratic Army of Greece*) 사이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지칭한다. 좌익과 우익 세력 사이의 격렬한 갈등은 전후 그리스의 사회정치적 삶을 상징하며 군사 정권이 집권한 1967 년부터 1974 년까지 계속되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동안 및 이후에 형성된 정치적 정체성은 오늘날까지 그리스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다.

이 논문은 구전 역사의 전통을 소개하며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에비아(*Evia*) 섬의 작은 마을에서 나온 두 편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한다(Thompson, 1963). 첫 번째 이야기는 형이 그리스 민주군과 함께 싸우다 사망한 *Antonis* 씨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 2 차 세계대전과 그리스 내전 기간 동안 마을에서 성장한 경험을 나누고있는 필자 이모의 이야기이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에서 내전에 관한 간단한 정황 정보와 전쟁이 끝난 후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한 지배적인 학문적 접근 방식과 공공 내러티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진실을 구성하고 재현하는데 있어서 진실을 안정된 범주로 고정시키고 사람들의 복잡한 일상 생활을 반영하지 않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재현하는 연구자이자 심리학자로서 필자의 역할에 대해 반성한다. 소외된 기억의 수집과 분석에서의 주요 사회심리적 이론 및 기법과 관행을 검토하면서, 사실의 문제로서 보편적 범주와 진정한 정체성의 개념에서 벗어난 인식론적 접근 방식의 규범적 및 양극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아래'에 대한 개념을 찾고 이야기하는 두 화자에 대한 지식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로 경험을 나누고 복잡하게 얽힌 일상 생활의 행보에 참여하여 범주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대화 상대이자 분석가로서의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시하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인생 이야기 두 편을 포함한다. 두 이야기는 일상 생활 행위의 맥락과 보살핌 관계 내에서 펼쳐지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호성은 '좌/우', '폭력/보살핌', '정치/개인'의 범주를 헝클어뜨리고 기억을 '동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갈등하는 역사의 복합물'로서 제시한다.(Hirsch, 2012, pg. 21)

## 역사적 맥락

필자의 친할아버지는 제 2 차 세계대전 동안 알바니아 전선의 그리스 군(*Hellenic army*) 및 레지스탕스와 함께 싸운 후 1952 년에 폐결핵으로 인해 33 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는 전쟁 중에 이탈리아 점령 지역이었던 *Evia* 섬의 *Mantoudi* 라 불리는 작은 광산 마을 출신이었다. 그는 대기근(1941-42)과 강력한 사회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살았다. 그는 가족, 공동체, 국가를 위해 번창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면서 *Evia* 의 레지스탕스와 함께 이탈리아 군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경험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Metaxas* 정권의 부패에 대한 *Katochi*(*Κα τ ο χή 1*) 사람들의 환멸이 시작된 이래 1936 년에 수립되어 조지 2 세(*King George II*)가 뒷받침하던 독재 정권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1941 년 메타사스가 사망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침략하면서 조지 2 세는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다. 영국이 면밀하게 감독하고 지원하는 그리스 망명 정부 또는 카이로 정부로도 알려진 이 정부는 국제 강대국이 인정하는 그리스 국가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다. 망명 정부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철수하는 1944 년까지 이집트에 남아있었다. 한편 그리스에는 점령군에 협력하는 다수의 행정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더 공정한 그리스를 꿈꾸던 그리스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이 출현했다. 1941 년 9 월, 공산당(*KKE*)은 좌파 정당과 함께 민족해방전선(*EAM, Ethniko Apeleftherotiko Metopon*)을 창설하였으며, 민족해방전선의 군대는 그리스 인민해방군(*ELAS, Ellinikós Laikos Apeleftherotikos Stratos*)으로 알려졌다. *Katochi*<sup>1</sup> 동안 *EAM-ELAS*는 전쟁에서 영국과 함께 추축국에 대항하는 가장 큰 저항 조직이 되었다. *EAM*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동안 그리스 협력 정부의 수상인 *Ioannis Rallis*는 저항 그룹과 주로 *ELAS* 를 박해하기 위해 준군사 그룹인 보안대(*Security Battalions*)<sup>2</sup>를 창설하였으며 나치에서 장비를 제공하였다. 1944 년에 독일이 떠나면서 *EAM*은 그리스를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었으며 *EAM*구성원은 보복으로 보안대원 수천 명을 살해했다.

같은 해, 모든 비협력자 세력이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자유주의자 *Georgios Papandreou* 가 이끄는 망명 정부가 귀국하여 *British Scobie* 명령에 의거하여 *EAM-ELAS* 구성원의 무장 해제를 발표했다. *EAM*각료들과 공산당원들이 사임하고 아테네에서 집회를 열어 협력 세력의 처벌과 명령의 철회를 요청했다. 시위로 인해 *EAM* 구성원과 보안대 및 영국군으로 구성된 정부군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그 후 백색 테러로 이어져서 *EAM* 구성원에 대한 보안대와 기타 준군사 그룹에 의한 끔찍한 보복이 이루어졌다. 1947 년, 그리스 공산당은 그리스 민주군(*Democratic Army of Greece*)을 결성하고 사생결단의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1949 년에 패배로 끝났다. 공산당은 법으로 금지되었고 군사 정권이 전복된

<sup>1</sup> 카토치(Katochi)는 제 2 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이탈리아-불가리아 군대의 점령을 가리키는 그리스 용어

<sup>2</sup> *Tagmatasfalites/T α γ μ α τ α σ φ α λ ί τ ε ς*

1974년까지 불법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 민주주의가 피비린내 나는 중단 없이 안정과 평화를 누린 것은 1974년 이후이다.

### 전쟁에 대한 내러티브

내전 직후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문학과 공공 영역을 지배한 내러티브는 남성 우익 승자에 대한 이야기였다(*Η α π α σ τ ρ ά τ η ς*, 1988). 그리스 정부의 군 지도자가 주요 출처였다. 이들은 *EAM*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사용한 얼굴 마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민족주의 정신에 호소하면서 *EAM*과 좌익 동조자를 테러를 사용하여 민족주의자 저항 조직을 파괴한 비그리스인으로 간주했다. 파시스트 점령군에 대한 자신들의 단기간 협력이 공산주의자에 의한 장기간의 지배 전망에 비해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다(Kalyvas, 1999).

최초의 좌파 내러티브는 60년대 정치적 자유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주로 그리스 공산당의 고위급 남성 당원들이 추진했다. 이들은 *EAM*을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대중적인 비공산주의 사회 운동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영국이 무력 분쟁을 강요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패배와 폭력적인 충돌은 영국과 미국 간섭 탓으로 돌렸다. 이전의 협력자들은 전후 정권을 수립하고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항하여 그리스 레지스탕스에서 싸운 사람들을 처형했다(Kalyvas, 1999).

우파 내러티브는 1967 - 1974 사이의 군사 정권 동안 재등장하였다. 1974년 민주주의의 재수립과 공산당 합법화와 함께 연구자들은 추방된 여성을 포함하여 민주군 내의 다양한 직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첫 번째 증언을 보기 시작했다(*Β ε ρ β ε ν ι ώ τ η*, 2008). 1981년에 거둔 사회당(*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의 승리는 좌파 내러티브를 오늘날까지 정치적 정체성과 교과서에 각인된 공식적인 국가 담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주로 정치 및 외교적 문제에 중점을 주며 (*Β ε ρ β ε ν ι ώ τ η*, 2002) 영망 상태의 그리스 기록 보관소, 공산당 기록 문서에 대한 공유에 대한 공산당의 거부 및 1989년에 진행된 경찰이 보유한 파일과 국가 문서에 대한 소각에 영향을 받았다. 좌파와 우파 정당 사이의 연립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리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전쟁의 종식을 나타내며,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닦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이 계획되었다. 90년대, 우리 연구자들은 양 진영 내의 양면성과 긴장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야기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하는 연구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사회 및 경제적 요인, 유태인, 난민, 슬라브 말을 사용하는 마케도니아인, 여성, 어린이, 젊은이 등 그 동안 존재하지 않고 침묵당했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인 발전과 국제 정치 환경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겨우 조각을 모으고 민족, 이념 및 사회문화적 차원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상태의 소외된 이야기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공 생활에서 부딪히는 미시적 요소 및 긴장과 모호성을 지닌 일상 생활을 수행하고 경험하며 탈바꿈하는 방법에 대한 초점이 부족하다.

## 인식론적 투쟁: 기억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야기

필자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할머니가 전하신 사고를 이야기하던 아버지를 기억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우리 마을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이탈리아 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할아버지의 부대는 군사 장비, 음식, 옷, 신발 등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군이 남긴 물품을 회수하려 갔다. 할아버지는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의 군용 신발은 소유한 한 켤레뿐이어서 그는 동료에게 이탈리아 군의 은닉처에서 한 켤레를 더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대장들은 극심하게 가난한 공동체와 음식과 옷을 공유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자신들끼리 분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 순간 할아버지는 환멸을 느끼고 레지스탕스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필자는 도덕적 우월성의 모범으로써 또는 피해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강한 유대감과 애정을 드러내면서 얽혀있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물질적 시간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다(Nolas & VarvanTakis, 2018). 이것은 공식적인 지배 담론에서 흔히 발견되는 선/악, 좌/우, 공정/불공정의 이분법을 파괴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 국가, 자유, 전쟁, 정의, 공동체, 성, 생활에 관한 몇 가지 개념이 있다.

필자는 (사회) 심리학자이자 연구자로서 이론, 사례 인식론을 연구하고 때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싶은 사람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증거를 평가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형태를 가집니까? 어떤 결과로? 누구를 위해? 우리 심리학자들은 심리과학이 단순히 세상을 반영하는 방법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심리 과학은 감옥, 학교, 군대, 병원, 공장 등의 실용적인 장소에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관리하며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했다(Rose, 1985). 우리는 심리학자로서 ‘정신’과 ‘영혼’의 전문가로서 등장한다.

19 세기에 심리학이 학문으로 등장했을 때 기억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다. 기억은 개인의 정신에 연결된 용기로 여겨졌다. 기억에 대한 저장 개념은 “마음 속의 밀랍 덩어리”<sup>3</sup>라는 플라톤(Plato)의 묘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배적인 틀이었다. 플라톤의 개념에서 이어지는 Ebbinghaus 의 연구는 기억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Wagoner, Brescó, & Awad, 2019). 학교 환경에서 등장한 그는 정보 보존의 최적화에 관심을 가졌다. 냉전 기간 동안 및 기술의 진보와 함께 용기(container) 은유를 따르던 심리학은 컴퓨터 은유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정신 작용이 컴퓨터와 유사한 기계적 원리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 세계에서는 과학적이며 세속화된 시선이 영혼의 영적 요소를 조금씩

---

<sup>3</sup>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또는 마음 속에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는 느낌 또는 생각에 밀랍 덩어리를 놓고 인장 반지로 각인을 한다. 그렇게 각인된 것이 무엇이든 인상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된다.”(플라톤, *Theaetetus*, pp. 191D - 191E)

벗겨내고 있다(Misztal, 2004). 영혼이 유일신, 범신 및 성직자로부터 떨어져 자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또한 낭만주의 운동과 정신 분석도 ‘진정한 내면 자아’로서 영혼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 분석의 경우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라기 보다 잊는 것이다(Hacking, 1995). 따라서 분석가의 과제는 숨겨지고 왜곡되고 부정확한 것을 밝혀내어 병리학적 상태와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적 맥락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되었다. 기억이 이러한 정체성의 기준이 되면서 기억 및 망각하는 행위는 신성한 개인적인 과정이 되었고 그 결과 공공의 관심이 사적인 관심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Misztal, 2004).

심리학이 “정보 처리” 개념에서 멀어지면서 Vygotsky(1930)와 Bartlett(1932)가 20 세기 초에 이미 탐구하기 시작했던 “의미 행위”(Bruner, 1990)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학과 인류학의 내러티브 전환기이기도 하다. 진화하는 문화적 전통에 내재되는 사회적 기원을 가지므로 이제 기억이 건설적이라고 간주된다. 기억은 개인과 집단의 ‘분기’를 거부한다. 기억하는 행위는 역사적 변화에서 특정한 사회적 의미의 형태와 체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고 간주된다(Wagoner et al., 2019). 기억을 내러티브에 연결하고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초점을 재조정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억을 건설적으로 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Gutman, Brown, & Sodaro, 2010; Merck, Topcu, & Hirst, 2016). 이 기간 동안 전기 작가와 전기 주인공의 정체성과 위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포스트 식민주의 및 페미니스트 정치 철학자에 의해 기억, 내러티브 및 역사에 대한 논쟁도 형성되었다(Stanley, 1993).

정치적 차원에서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사람들의 기억, 인생 및 권리를 공백 상태에서 회복시키려는 사회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기억을 건설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집단적 권한 부여 수단으로서 정체성 운동과 연관되며, 대체 가능한 기억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으며, 보다 나은 삶을 상상하며 과거의 불의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제 트라우마를 낳는 기억과 한 사람의 정체성, 개인, 집단, 국가 또는 세계화된 기억 사이의 관계는 한 사람의 진정한 본질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Foucault 가 반기억(counter-memory)(Foucault, 1977)이라고 부르는 소외되고 실격된 기억은 지배 담론에 도전하며 한 수준에서 부서진 존재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되찾고 그들에게 가정의 느낌을 주는 범주의 레퍼토리를 그룹에 제공한다. 또한 다른 수준에서 이러한 기억은 기억을 동결하고 수정해서 비통해하면서 사실의 문제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그러나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의 문제’에서 ‘사실의 문제’로 문제가 전환되는 방향은 그것을 구성하는 집합체의 다양한 목소리와 논쟁을 단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Latour, 2004; Stengers, 2005). 방향을 뒤집을 수 있으나, 일부 관심사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낳는 공동 세계의 일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Blaser, 2016). 따라서 사실의 문제로서 트라우마를 낳는 기억과 정체성 사이의 연결은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그룹 내 및 그룹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합법화시켜서 여러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폐쇄하고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불러 일으킨다.

종종 이론 및 분석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소외된 기억을 표현하고 침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인 정체성과 범주에서 벗어나 연구를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원성(binary), 공통성(commonality) 및 차이(difference)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분석한다. Sassen 은 범주란 생각하지 않기 위한 초대라고 주장한다(Sassen, 2014). 결과적으로 우리 심리학자들은 특정 가치, 관심사, 비전, 생활 방식을 부여하는 진리를 생성한다(Hüning, Cabral, & Ribeiro, 2019). 그렇게함으로써 일상 생활과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와의 구체적이고 모순된 관계를 지나쳐버린다. Benjamin 은 기억 속에서 과거를 경험하는 방식이 동질적이거나 공허하지 않다고 상기시켜준다(Benjamin, 1968, p. 264). 우리가 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의미의 범위와 이러한 범주 사이 또는 범주 내에 놓여 있는 부분적인 진실을 놓친다(Haaken, 1998, p.4).

존재의 모호함과 다양성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려고 시도할 때 모든 관심사, 기억, 전망증, 상식적인 진실 및 행위와 함께 “의도와 현실 사이의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관행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그들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Janice Haaken, 2010). 우리 사람들은 일상 생활의 여러 세계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관행에 참여하여 ‘인간과 인간 세계 이상의 것 사이에 ‘살아있는 관심망(living webs of care)’을 만든다(de la Bellacasa, 2017). 평범한 일상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과 관심 문제가 존재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e.g. De Certeau, 1984; Thompson, 1963). 평범한 일상은 다양한 결과와 자발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침묵하는 관심사를 보다 더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상이 된다.

필자는 실질적이며 분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주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넘어서는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영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발견되어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색조를 상실시키는 뒤죽박죽된 실제 경험, 주제 및 담론을 분류해서 조직하는 것을 기다리는 심리사회과학의 요구에 저항할 필요성을 느낀다. 얽힘의 개념은 이러한 복잡성을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분석적이며 실제적인 접촉의 공간을 제공한다. “얽힘은 모험이며 아마도 데이터 세트를 통한 욕망 라인일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흥분, 위험, 혼란 및 사랑의 문제를 불러온다. 그것은 합쳐지는 본체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지식 생성 방식 및 생활 경험의 생산, 표현 및 소비 매체의 교차와 얽힘을 엉켜서 비틀리게 한다”(Nolas & VarvanTakis, 2018).

눈에 덜 띄고 얽혀있는 일상의 경험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아래로부터의 역사’(Thompson, 1963)에 참여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 이러한 접촉을 설명하는 매체로 등장한다.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목소리 장르로 Edward Said 가 “지평의 공존과 확장(a coexistence and enlargement of horizons)”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노력할 필요성, 느낌 및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스토리텔링은 정서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부분이며 종종 설명을

벗어나서 놓치는 경향이 있다(Alexevitch, 2016). Hüning 등(2019)은 Walter Benjamin(1963)이 그리스는 브라질의 북동부에 있는 소외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우리에게 쓰레기 수거자 작업을 수행하여 역사적 또는 과학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관심사로 간주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에 필요한 ‘진보’의 유물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그리스 내전의 맥락에서 대서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다. 전쟁은 종종 남성이 들려주기 때문에 여성의 이야기는 미미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90 년대에야 등장하기 시작했다<sup>4</sup>. 현재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향에서 전쟁에 연루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또 다른 동기는 일상적으로 얽히는 매일매일의 생활 경험과 겹치는 여러 관심사에 관여하지 않는 현존 문학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 ‘아래’는 어디인가? 관심에 대한 이야기

필자는 아버지에게 그의 고향에서 전쟁에 참여한 여성을 아는지 묻는다. 아버지는 근처 마을에서 그리스 민주군과 함께 싸운 여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해줄 여성 친척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삼촌이 그녀의 가족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 중 한 명과 연락을 취했다. 불행히도 그는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실제로 그는 우리 마을의 공산당 공식 당원 중 한 명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삼촌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다. 이 이야기에는 공산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서 대안을 찾아보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친구와 대화하는 중 친구에게 내전 동안에 그리스 민주군과 함께 싸우다가 죽은 형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친구는 필자에게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남자와의 대화 가능성이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또한 내 자신이 설정한 범주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등했다. 그러던 중 ‘아래’ 개념을 찾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Jim Sharpe(1991)가 떠올랐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의 자동차 카센터로 가서 그를 만났다. 그는 그리스 커피를 주었고 우리는 강 옆에있는 플라타너스의 짙은 그늘 아래에 앉았다. Antonis는 1942 년에 태어난 매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필자하고 대화하게되어 매우 기뻐했다. 그는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준데 대해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형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필자가 여성의 가족이 그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언급하자 그는 말했다. “그때는 대답하는게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지?” 그는 10 년 전에 마을에서 언론인 팀을 접대하여 전투 지역 주변을 보여주고 자신의 형과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그를 놀리며 웃었다. ‘내 남편은 지금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아요. 그는 전쟁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 톤, 눈, 말하는 속도는 열정으로

<sup>4</sup>1945 년부터 2016 년까지 869 건의 증언이 발표된 가운데 779 건은 남성이 썼고 90 건은 여성이 썼다(Kαραγιαννάκη-Μιχάλογλου, 2019)

가득차 있었다. *Antonis*는 필자가 그보다 어리고 우리 역사 중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 ‘나는 이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어, *Stavroulitsa*<sup>5</sup>.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그는 말했다. 필자는 그가 필자와 함께 자신의 형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관심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보편적인 연결로서가 아니라 *Maria de La Bellacasa*가 설명하는 대로 ‘가로지르는, 즉 독립체 또는 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무언가가 존재들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인식을 강화시킨다’(de la Bellacasa, 2017, p. 161).

*Antonis*는 11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랐으며 단순하지만 안락한 가정 환경이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다른 마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상반되는 이야기라 놀라웠다. 그의 형은 16 살에 전쟁에 참가했고 1년 후 *Evia*에 있는 산에서 전투하다가 사망했다. 그의 형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 중에는 상호 주관적인 관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 자유, 안보, 인정이 위태로운 순간에 신뢰, 성실,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활력이 있고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관계망이 등장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단편 몇 가지를 선택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모에 관한 이야기이다. 무더운 여름 오후, 어머니와 함께 이모집에 방문했다. 이모는 ‘전쟁에 연루된 여성’이라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모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모가 제 2차 세계 대전과 내전을 겪은 몇 안 되는 생존 여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모는 1932년에 태어났다. 필자는 이모에게 이모의 기억을 공유하고 싶은지 물었고, 이모의 이야기를 사용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ntonis*와 달리 이모는 부끄러워했고 겸손했다. ‘할 말이 별로 없어’라고 이모는 말했다. 필자를 향하는 시선이 갑자기 변했다. 이모는 더 이상 필자를 조카가 아니라 연구자로 바라보았다. 이모는 겁을 먹었고, 필자는 특히 여성으로서 말해야 하는 내용을 들으려 하는 열의와 열정을 표현했다. 이모는 곧바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라고 대답했다. 신뢰와 친밀감이 있는 가족은 정치적인 대화와 연구를 위한 아주 좋은 상황이다(Nolas et al., 2017). 커피 한 잔을 두고 나누는 대화가 갑자기 가족 경험을 이야기하는 아주 멋진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모 가족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급급했다. 이모에게는 형제 자매가 3명 더 있었고 이모의 아버지가 이모가 아주 어린 6살 때 사망했다. 이모의 어머니는 4명의 자녀와 함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모는 필자의 많은 질문에 대답을 꺼려했고 자신의 이야기와 ‘의제’를 주장해서 결국 내 질문을 포기했다. *Alessandro Portelli*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이모에게 소중하며 이모가 관심을 가진 이야기였으며, 종종 우리의 의제에 맞지 않을 때 분석에서 건너 뛴 위험이 있다(Portelli, 2014). 이것은 필자가 공유하려는 몇 가지 이야기이다. 이모의 이야기는 진부한 의미에서 영웅적인 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빈곤, 남성 권위, 문맹, 외세 감점, 인간과 인간 세상 이상의 것에 대한 관심의 관계에 대한 맥락에서 이모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

<sup>5</sup> *Stavroulitsa*는 필자 이름 *Stavroula*의 약칭이다.

여기에서 멈추고 싶다.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다. 필자는 심리사회학의 눈높이에서 통해 이야기를 설명하며 “왜”와 “진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필자의 전문적인 습관에 더 깊이 빠지지 않기를 바랐다. *Benjamin* 은 내러티브를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교환하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내러티브는 설명을 가정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이 내레이터를 동반하여 애정과 생각을 낳도록 허용한다(Hüning et al., 2019). 이 이야기는 *Victor Turner*가 ‘경계 공간’이라고 부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기억과 망각, 관심과 단절, 정치와 개인, 젊음과 노년, 삶과 죽음 인간과 인간 이상 사이의 경계와 전쟁과 고난 상황에서 일상적인 관계망 내의 감정, 생각 및 관행 사이의 경계에 대한 반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끌어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들의 이야기이다.

### *Antonis Bekkakos* 이야기

내가 5 살 때였지. *Takis* 형이 떠나려고 옷을 입었을 때를 기억해. 그의 이름은 *Kostas* 였지만 우리는 그를 *Takis* 라고 불렀어. 우리 집은 *Troupi*<sup>6</sup>에 있었고 형이 엄마에게 알리던 순간을 기억해. “엄마, 나 떠나”. 그리고 그는 헤링본 무늬가 있는 재킷을 입었어. 그 재킷이 매우 생생하게 기억나. 엄마가 울다가 외쳤어 “안돼, 애야, 가지마, 너는 죽을거야.” “갈거야 엄마. 나는 갈거야. 내가 죽을지는 관심 없어. 더 나은 미래로 가야해.” *Troupi*의 많은 소년들이 게릴라에 합류했어. *Takis*에서 4 ~5 명의 친구들이 이미 합류했지. 게릴라가 마을에 야영하러 왔을 때를 기억해. 여자들이 카페 밖에 벤치를 놓고 그들에게 빵을 주었어. 형보다 2살이 더 많은 다른 소년, *Michalis*가 있었어. 그는 그들에게 실패와 옷핀을 주면서 거기에 나무 조각을 내놓았어. 그는 앞에 앉아 소리쳤어. “우리 모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싸우러 갔어. 이 모든 불행과 불운이 낫다고 생각해?” 어린애였던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치 그림처럼.

형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 가족 모두를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추방할 계획이었어. 그러나 우익인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이 우리를 보호했어. 아버지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시장을 알았어. 시장 이름은 *Nikolaou* 였지. *Nikolaou* 는 여기에서 매우 강력한 인물이 되었고 아버지는 1926 년에 그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지. 그의 아들은 *Takis* 와 같은 나이였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지원했어. 정말 그랬어. 우리는 대자(*godson*)와 매우 가까웠어. 그의 가족은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했어. 그들은 우익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이었어. 나는 알지 못해. 우리는 그들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추방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Evia* 의 이 지역에 대한 KKE<sup>7</sup> 서기장이었어. *Hitades*<sup>8</sup> 2 명, *Boultzis*와 *Viletzas*가 있었고 아버지는 *Troupi* 에 살았어. 그들은 제 1 차 게릴라 전쟁 때 아버지를 처형하려고

<sup>6</sup> *Troupi*는 *Mantoudi*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Antonis*는 가족이 *Antonis*로 이사가기 전에 5 살까지 거기에 살았다.

<sup>7</sup> 그리스 공산당

<sup>8</sup> *Hitades*(*X ι τ á δ ε ς*)는 1941 년에 결성되어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정령군에 협력한 장군으로 구성된 조직 ‘X’의 구성원을 나타낸다.

데려갔어. 27 살먹은 젊은 성직자가 있었어. 그런데 멋진 젊은이! 그는 우익인 마을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했어.

“*Bekakos*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서 나갈 수 없어. 나는 *Troupi*를 태워 버리고 너희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여버릴거야.”

우익 마을 사람들은 *Boultzis*와 *Viletzas*를 붙잡고 말했어.

“*Bekakos*를 괴롭히지마. 우리는 그를 믿어”

*Hitades* 중 한 명이 아버지를 쏘았지만 총알이 빗나갔어. 아버지는 간신히 도망쳤어. 우익들은 그를 좋아했어. 아버지는 *Mantoudi*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 그는 전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1926년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전기를 가져오신 분이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어. 사람들은 “*Bekakos*는 최고의 남자야. 그는 자신의 신념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 *Bekakos*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어”라고 말하곤 했지. 그들은 아버지를 많이 존경했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

1941년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을 때 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 그는 열심히 일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2 ~ 3명 있었지만 모두 죽었어. 그러나 그는 냉혹하기도 했어. 우리가 물건을 훔쳤을 때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마구 때렸어. 나는 크게 버릇이 없지 않았어. 세살 어린 동생이 말을 엄청 안들었어(웃음). 그는 모든 사람과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곤 했어. 나는 조용한 아이였어. *Takis* 형은 인기가 많았어. 모두가 그를 사랑했어. 그는 똑똑했고 *levedopaido*<sup>9</sup>였어. 매우 강하고 착한 젊은이. 그는 겁이 없었고 항상 조용했어. 그는 매우 침착했어. *Nikosz* 형은 키가 작았고 전혀 신경쓰지 않는 *Takis* 형과는 달리 쉽게 겁을 먹곤 했어. 어머니는 모든 심부름을 *Takis*에게시키곤 했지.

“엄마, 왜 항상 나에게 모든 걸 시켜?”

“네가 나아, *Takis*.”

“*Nikos*는 왜 보내지 않아?”

“네가 더 강해. 그리고 *Nikos*는 말랐잖아”(웃음)

어머니는 매우 멋지고 조용한 여성이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면 어머니가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때렸어. 그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랬지. 그는 교육을 좋아했어. 어머니는 항상 우리 편이었어. 그녀는 단순한 여성이었어. 어머니가 우리에게 숙제를 끝냈는지 물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했어(웃음). ‘예, 엄마. 숙제를 다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확인했어. 그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우리의 발전 상태에 대해 묻곤 했어.

그 당시에는 많이 두려워했어. 아버지는 지역 편의점을 운영하는 *Alekos*에게서 매일 신문을 샀어. 그는 우익이지만 아버지를 좋아했어. 아버지도 그가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어느날 아침 신문을 사러갔을 때 *Alekos*가 아버지에게 말했어.

---

<sup>9</sup> *Levedopaido* (Λ ε β ε ν τ ό π α ι δ ο)는 *The sky is clear now, full of stars*. 용감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로 *Levant*라는 그리스 이름에서 파생되었다. *Levant*는 동부 지중해의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지리적 용어이다.

“Vassilis 씨는 당신네 신문을 정기 구독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켜보고 있다. Acropolis<sup>10</sup>를 사서 카페에 가서 읽는 척하는게 어때?”

그는 아버지를 보호했다. 그는 우익이지만 아버지를 좋아했어. 내가 Acropolis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질문했어. “아버지, 왜 아버지네 신문을 사지 않아요?”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Antonis가 웃음).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우파 대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추방당했을거야.

1950 년에서 1953 년 사이에 형, 형수, 동생, 제수가 Agia-Sofia로 가서 형의 뼈를 수거해왔어. 저 위의 마을이야. 그 때 게릴라들이 기념비를 들고 다시 와서 전투에서 죽은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형을 묻어달라고 요청했어.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어.

“여기 Agia-Sofia 에 묻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당신네 모두를 산체로 불태워버릴거다. 가서 그들을 묻어라. 그리고 그들을 잘 묻었는지 확인해라.”

마을 사람들은 산속의 나무 숲 한가운데에 그들을 묻었어. 그런데 내 형과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 Chalkida 외곽에있는 Gododespoti란 마을로 갔어.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고 현지인 중 한명이 그들에게 말했어. “저기에 있는 저 사람 보여요?” 그는 재단사예요. 그가 모두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군대를 지원했는지 또는 그가 Mais<sup>11</sup>인지 누가 알아? 50 년대는 어려운 시기였어. 그러나 우리는 대자가 있었고 그는 우익이었으며 우리를 지원했지. 그래서 내 형은 재단사에게 갔어.

“이봐요, 미안합니다. 잠시 얘기 좀 해요. 나는 나쁜 의도로 여기에 온게 아닙니다. 나는 선원입니다. 나는 저기에서 형을 잃었어요. 그는 Fteritsa 에서 살해되었고 그들은 그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묻었어요. 안심하세요. 당신에게 돈과 모든 것을 보낼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게요. 내가 당신을 보살필게요.

그는 잠시 멈춰서 그들을 쳐다봤어.

‘이리와요, 갑시다.’

그는 모두 알고있었어. 그는 형이 싸운 장소와 그가 죽은 장소를 알려주었어. 뺏조각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리 깊이 묻혀있지 않았어. 그들은 마을로 가져가서 작은 의식을 거행했어.

나는 Takis 형과 Nikos 형의 친구였던 Thodoris 를 기억해. 그는 Troupi 에서 우리 옆집에 살았어. Thodoris 는 다른 애들과 함께 Takis 를 괴롭혔어. Takis 형은 그들에게 정말로 화를 냈어. 그러자 Thodoris 는 형에게 농담을 했어 “어이 Takis, 우리에게 왜 심술이야? 우리는 이제 친구야.” 군대는 사람들이 빵 물 그리고 모든 우물을 구하기 위해 갔던 장소를 확보하고 지키곤 했지. Thodoris 가 물을 구하러 갔을 때 군대가 그를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냈어. 나는 그가 Pireus 에서 Nikos 의 주소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 수 없어. Thodoris 는 Nikos 에게 편지를 썼어.

“Niko, 내 형제이자 친구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야. 나는 우리 형제 Takis 를 만나러간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싸웠지. 나는 오늘 처형당한다.

<sup>10</sup> The sky is clear now, full of stars. Acropolis 는 자유주의 신문으로 여겨졌다.

<sup>11</sup> Mais(M α η ς)는 정부군을 지원했던 M.A.Y(Monades Asfaleias Ypethrou/농촌 보안대)라 부르는 특수군에 속하는 사람이다.

*Theodoros Mitalas*”

내 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내가 알았다면 그를 만나러 감옥에 갔을거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 그들은 어린 나이에 처형당했어. 그는 겨우 19 살이었어. *Takis* 형보다 두 살 많았지. 여기 봐. 소름이 돋았어.

## 내 이모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기억해. 독일인과 이탈리아인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곤 했어. 여기에는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있었지. 아버지가 아플 때 이탈리아인 중 한 명이 우리 집 밖에 매달린 *mizithra*<sup>12</sup>를 훔친걸 기억해. 그는 그걸 자신의 앞치마(웃음)에 넣은 후 우리 엄마와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어.

“모두 동시에 울어라”

우리는 울기 시작했고 우리가 울자마자 다른 이탈리아인이 말했어.

“*Via Via, piccola*”

이것은 ‘우리는 떠나야 한다’를 의미했어. 좋은 이탈리아인도 몇 명 있었어. 그들은 어린이들을 ‘*piccola*’(꼬맹이)라고 불렀어. 나는 그것을 기억해. 나는 겨우 6 살이었지만 많은 것을 기억해. 그들이 와인을 ‘*vino*’(포도주)라고 부르게 생각나. 아픈 사람을 ‘*malaria*’(말라리아)라고 불렀어. 죽은 사람은 ‘*kaput*’(끝장났다)라고 불렀어. 나는 많은 것을 알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해. 나는 어렸지만 이탈리아 단어를 많이 배웠어.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를 모두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 그때는 많이 알았지만 지금은 잊어버렸어. 아버지가 아플 때 좋은 이탈리아 사람이 어머니에게 말했어.

“말라리아, 말라리아, 다른 *Greco*에 가서 *piccola*들이 먹을 음식을 사올게.”

그들은 그리스를 *Greco*라고 불렀어. 어머니가 대답했어.

“아니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는 그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어. 너에게 말하지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좋은 사람은 *John*이라고 불렀어. 그래,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봐. 나는 단어를 한 번 들으면 그 단어를 각인시켜.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단어를 적어놓은 것과 같아. 나는 마음을 컴퓨터라고 불러. 나는 내 전화 번호로 전화한 적이 없지만 아직도 번호를 기억해. 내가 은행에 가면 그들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봐. 나는 《22671》이라고 대답해. 그리고 더 많은 전화 번호도 기억해. 번호를 들으면 외워서 기억해. 매우 많이... 여기 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화 번호도 많아.

내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냈지?”라고 물어봐. 나는 많은 일을 했고 광산에서도 일했어. 나는 세 자녀를 키웠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나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어. 그리고 마나리아<sup>13</sup>와 헛간이 내거야. 내가 그들을 돌보고 페인트 칠했어. 내가 우리 거리도 페인트 칠했어.

---

<sup>12</sup> 그리스 치즈의 일종

<sup>13</sup> 양을 나타내는 현지 속어

나는 완전 문맹이야. 완전히...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읽고 철자를 써서 몇 가지 배웠어. 다른 여자 애들처럼 학교에 갔으면 문맹이 아니었을텐데... 그 때 전쟁이 터졌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예닐곱 살이었고 그래서 성인의 책임을 떠맡았어. 나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어. 두 언니는 양 돌보는 것을 싫어했어. 내 동생은 너무 어렸어.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4명 길러야 했어. 어머니의 말을 기억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양을 팔면 아무 것도 가진게 없게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양을 돌볼게요.” 내가 말했어.

“네가 양을 돌보면 나는 너에게 재봉틀을 사줄게.”

그것은 오래된 기계 중 하나였어. *Singer*. 마을에서 기계를 파는 가제 주인인 *Kanakakis*가 몇 년 뒤에 어머니에게 “임대주거나 팔지마세요. 이런 재봉틀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 내가 양들을 지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암양 13마리를 주고 재봉틀을 산 것을 기억해. 내가 양들을 지키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양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새끼양이 병에 걸리면 “동정녀 성모 마리아여 이 양을 치료해주세요”라는 식으로 기도했어. 으~~ 아냐!, 내가 재봉틀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양들이 죽거나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나중에 양들을 염소로 바꾸었어. 나는 염소의 수를 25마리에서 90마리로까지 늘렸어. 그리고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서 바다 근처의 *Kastr<sup>14</sup>*까지 걸어서 가곤 했어. 밤에 돌아왔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낮추어준 것을 기억해. 다른 양치기들이 말하곤 했어.

“이렇게 작은 꼬마 애가 우리 모두를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치기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애의 양이 우리 양보다 모양이 더 좋아?”

내전 중에 학살이 있었어. 그들이 누군가의 머리를 여기 중앙 광장으로 가져온 일을 기억해. 죽은 사람이 게릴라였는지 *Rallide<sup>15</sup>*였는지 기억나지 않아. 내 언니(그녀에게 신의 축복을...)는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보러갔어. 나는 가지 않았어. 나는 이런거를 보고싶지 않았어. 언니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두려워했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지? 언니는 모든 것을 무서워했어. 누군가 문을 조금 더 세게 두드리면 언니는 불안해할거야(웃음). 그래서 언니에게 물었어.

“무서우면 왜 갈거야?”

“궁금하니까”

기억난다... 이제 늙어서도 닭을 도축할 수 없어. 나는 나이프로 어떤 일도 하고싶지 않아. 내 여동생이 동물을 죽이고 나에게말하곤 했어.

“아무 것도 아냐”

“그렇지만 어떻게 아무 것도 아냐?”(이모가 웃음)

“한 번 죽이면 계속해서 죽일거야.”

“나는 한 번이라도 죽이고 싶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

<sup>14</sup> 6 km 거리이다.

<sup>15</sup> 보안대의 활동명. *Ioannis Rallis*는 전쟁 중에 독일군과 협력한 수상 중 한 명

나는 나이프로 동물을 찌를 수 없어. 여동생이 도축을 담당했어. 동생은 뱀도 죽였어. 작년에 뱀이 밖에 있었어. 뱀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밧을 뺀어서 신발로 머리를 눌렀어. 그때가 내가 뱀을 죽인 유일한 경험이었어.

양을 방목하는 산에는 뱀이 아주 많았어. 한 번은 뱀이 염소의 다리를 물어서 염소 입으로 거품이 나왔어. 나는 나이 든 여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 “아줌마, 뱀이 내 양을 물었어요. 거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애야, 나는 몰라.” 그리고 나는 그녀 나이의 여자에게 단서가 없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했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내가 들었던 것을 기억해. *Mourtzia*<sup>16</sup> 나무에는 바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서 양의 다리를 찌르기 시작했어. 독이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양을 구했어. 내가 양을 좀 더 오래 놓아두었으면 양이 죽었을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료 면허를 가졌어(웃음).

모든 사람이 죽은 사진이 있어.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사진에 사촌 두명과 여동생이 있어. 두 명은 사촌의 처남이고 어린 사촌 *Labros* 가 앞에 누워있어.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야(웃음)

여기 봐. 하늘은 이제 맑고 별들로 가득해.

---

<sup>16</sup> *Crataegus* 로 알려진 부시 나무의 일종

## 참고 자료

- Alexevitch, S. (2016). Voices from the People: The Rise and Fall of the Russian–Soviet Dream: Bartels World Affairs Fellowship Lecture. Retrieved August 31, 2020,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DHAupC2srco>
- Benjamin, W. (1969).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A. Hannah & trans. H. Zohn, Eds.). <https://doi.org/10.1080/07075332.1985.9640373>
- Benjamin, W., & Zohn, H. (1963). The Story–Teller: Reflections on the Works of Nicolai Leskov. *Chicago Review*, 16(1), 80. <https://doi.org/10.2307/25293714>
- Blaser, M. (2016). Is Another Cosmopolitics Possible? *Cultural Anthropology*, 31(4).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 la Bellacasa, M. P. (2017).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In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oucault, M. (1977).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D. F. Bouchard & S. Simon, Ed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Gutman, Y., Brown, A., & Sodaro, A. (2010). *Memory and the Future: Transnational Politics, Ethics and Societ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aaken, J. (1998). *Pillar of salt: Gender, memory, and the perils of looking back*. New York, N.Y.: Rutgers University Press.
- Haaken, Janice. (2010). *Hard knocks: Domestic violence and the psychology of storytelling*. <https://doi.org/10.4324/9780203857465>
- Hacking, I. (1995). Memory Sciences, Memory Politics. In P. Anzte & M. Lambek (Eds.), *Tense Past: Cultural Essays in Trauma and Memory* (pp. 67–88). London: Routledge.
- Hirsch, M.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üning, S. M., Cabral, R. J., & Ribeiro, M. A. T. (2019). Nas Margens: Psicologia, Política de Assistência Social e Territorialidades. *Revista Polis e Psique*, 8(3), 52. <https://doi.org/10.22456/2238-152x.86108>
- Kalyvas, S. (1999). The Greek Civil War in Retrospect. Correspondence. *An International Review of Culture and Society*, 4, 10–11.
- Latour, B. (2004).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Vol. 30, pp. 225–248. <https://doi.org/10.1086/421123>
- Merck, C., Topcu, M. N., & Hirst, W. (2016). Collective mental time travel: Creating a

- shared future through our shared past. *Memory Studies*, 9(3), 284 – 294.  
<https://doi.org/10.1177/1750698016645236>
- Misztal, B. A. (2004). The Sacralization of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7(1), 67 – 84. <https://doi.org/10.1177/1368431004040020>
- Nolas, S. M., & Varvan Takis, C. (2018). Entanglements that matter. Retrieved August 31, 2020, from Entaglements website: <https://entanglementsjournal.org/entanglements-that-matter/>
- Nolas, S. M., Varvan Takis, C., & Aruldoss, V. (2017). Political activism across the life course.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2(1 – 2), 1 – 12.  
<https://doi.org/10.1080/21582041.2017.1336566>
- Portelli, A. (2014). *Stories I Skipped: Narratives of Care, Narratives of War*.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FTGYBC2mRxE>
- Rose, N. (1985). *The Psychological Complex: Psychology, Politics and Society in England, 1869 – 1939*. London: Routledge.
- Sassen, S. (Speaker), Warburton, N. (Interviewer). (2014). Saskia Sassen on before method [Audio podcast].
- Sharpe, J. (1991). History from Below. In P. Burke (Ed.),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pp. 24 – 41). Univ. Park, PA, Pennsylvania State UP.
- Stanley, L. (1993). On Auto/Biography in Sociology. *Sociology*, 27(1), 41 – 52.  
<https://doi.org/10.1177/003803859302700105>
- Stengers, I. (2005). The Cosmopolitical Proposal. In B. Latour & P. Weibel (Eds.), *In Making Things Public: Atmospheres of Democracy* (pp. 994 – 1003). Cambridge, Mass: MIT Press.
- Thompson, E. P. T. (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Vintage Books.
- Wagoner, B., Brescó, I., & Awad, S. H. (2019). *Remembering as a Cultural Process*.  
<https://doi.org/10.1007/978-3-030-32641-8>
- Βερβενιώτη, Τ. (2002). Προφορική Ιστορία και Ερευνα Για Τον Ελληνικό Εμφύλιο. *Επιθεώρηση Κοινωνικών Ερευνών*, 107, 157 – 181. Retrieved from [https://emfilios.blogspot.com/search/label/ΠΡΟΦΟΡΙΚΗ ΙΣΤΟΡΙΑ ΚΑΙ ΕΡΕΥΝΑ ΓΙΑ ΤΟΝ ΕΛΛΗΝΙΚΟ ΕΜΦΥΛΙΟ%282002%29#\\_ftn2](https://emfilios.blogspot.com/search/label/ΠΡΟΦΟΡΙΚΗ%20ΙΣΤΟΡΙΑ%20ΚΑΙ%20ΕΡΕΥΝΑ%20ΓΙΑ%20ΤΟΝ%20ΕΛΛΗΝΙΚΟ%20ΕΜΦΥΛΙΟ%282002%29#_ftn2)
- Βερβενιώτη, Τ. (2008). Μνήμες και αμνησίες των αρχείων και των μαρτυριών για τον ελληνικό εμφύλιο. *Η Αθήνα και η επαρχία, η Ηγεσία και τα μέλη*. In Μπούσχοτεν Πίκη-Βαν, Τ. Βερβενιώτη, Ε. Βουτυρά, Β. Δαλκαβούκης, & Μ. Κωνσταντίνου (Eds.), *Μνήμες και λήθη*

του ελληνικού εμφυλίου πολέμου (pp. 81–102).

Θεσσαλονίκη: Επικεντρο.

Καραγιαννάκη-Μιχάλογλου, Χ. (2019). *Εμφυλ(ι)ο: όψεις της ιστορίας των γυναικών τη δεκαετία του 1940 με επίκεντρο τον Εμφύλιο Πόλεμο* (Panteio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s). Retrieved from

<http://pandemos.panteion.gr/index.php?op=record&pid=iid:20051&lang=>

Παπαστράτης, Π. (1988). *Η ιστοριογραφία της δεκαετίας 1940–1950*. In *Σύγχρονα θέματα* (pp. 183–187).